

율법을 가르친 에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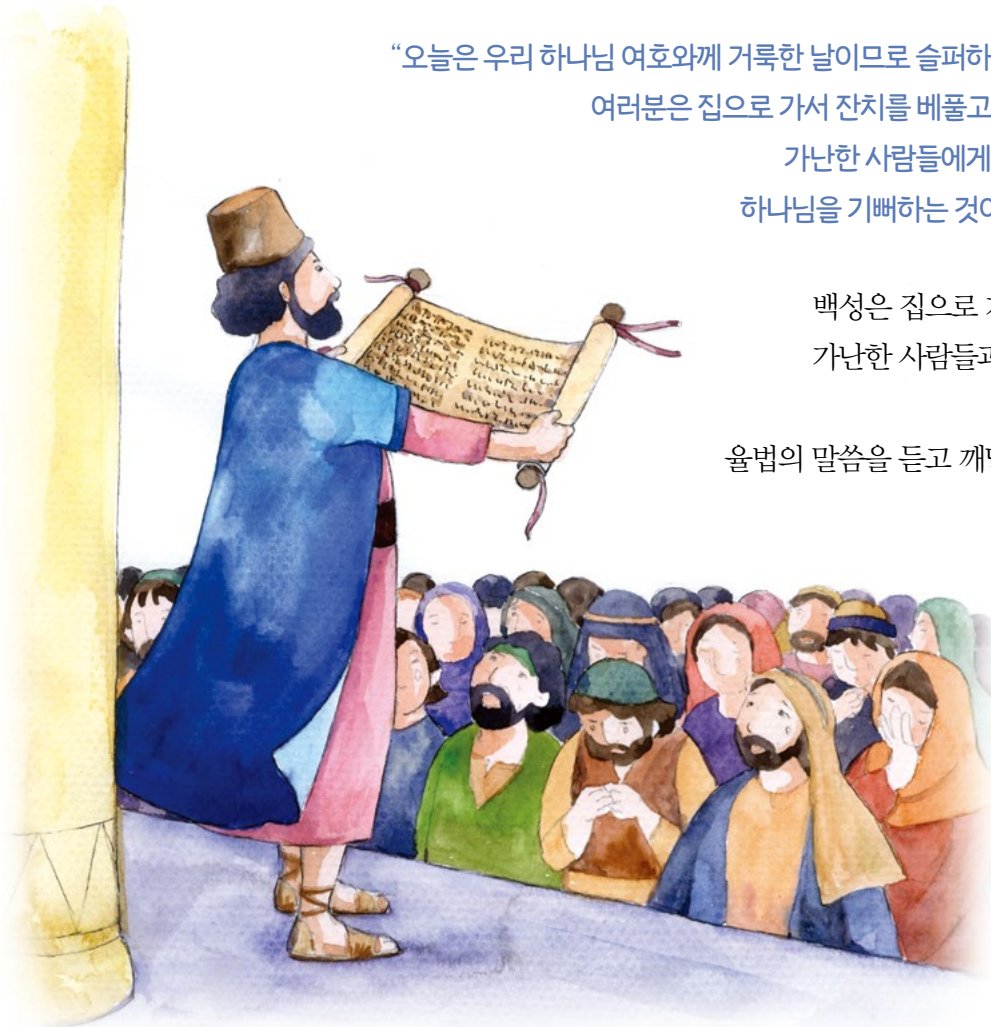
느헤미야 8장

포로로 있다가 자기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7월 1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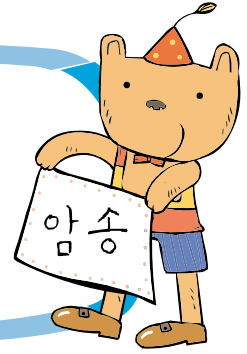
에스라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 책을 읽어 주었으며 백성은 모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었습니다. 백성은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므로 슬퍼하거나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베풀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백성은 집으로 가서 음식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였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시편 19:10)



그 다음 날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에스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율법책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월의 초막절 기간에는 초막에서 지내라고 명령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두 알렸습니다.

“여러분은 산으로 가서 감람나무, 종려나무, 그 밖에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를 꺾어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시오.”

그러자 백성은 가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옥상이나 마당, 성전 뜰 등 여러 곳에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들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내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부터 초막절을 이렇게 크게 지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이 명절 7일 동안 매일 율법 책을 낭독하였으며 8일째 되는 날에는 말씀대로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오늘의 공부

말씀을 사모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백성은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성경을 찾거나 그림을 보며 설명해 보세요.



느헤미야 8:3



느헤미야 8:9



느헤미야 8:6

부터 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백성의 기쁨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했던 두 가지 이유를 느헤미야 8:8~12의 말씀을 읽고 써 보세요.

여호와와 은 정직하여 마음을 하고 (시편 19:8)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8)

오늘의 말썸을 배우고

하나님과 기쁨

🌸 다음 보기를 보며 여러분이 느끼기에 정말 즐겁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적어 보세요.



보기

내가 구원받았을 때,

구구단을 다 외웠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할 때,

내 생일이 되어 생일파티를 할 때,

나중에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할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월암송을 외웠을 때,

만화책을 읽을 때,

내가 전도한 친구가 구원 받았을 때,

수학경시대호1에서 100점 맞았을 때,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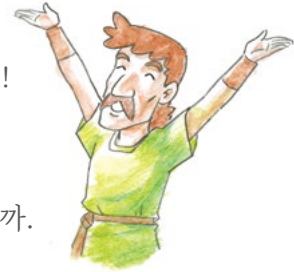
🌸 다음 예화를 보고 물음에 대답해 보세요.

하박국

무화과 열매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소도
아무것도 없구나!



하지만 나는 정말 기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정말로 좋은
천국까지 갈 수 있으니까.



예레미야

사람들은 전도를 해도
듣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구나!



하지만 나는 정말
기쁘고 즐겁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 하박국이나 예레미야가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시편 16편이나 23편을 읽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 보세요.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7)



알아볼까요

* 초막절

초막절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광야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이때에는 광야에 나가 큰 나뭇가지나 풀들을 엮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살며 지켰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초막절은 모든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한 다음에 지킨 절기였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때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때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모님
난

선생님
난